

SK의 넷제로 역량 구현된 미래도시... 친환경 기술 총망라

글로벌 탄소중립 동맹 기술력 과시
탄소감축 솔루션 등 직접 체험 가능
UAM·SMR·지속가능식품 등 선봬

SK그룹이 CES2023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친환경 탄소감축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SK는 이번 CES에서 40여개의 관련 신기술 및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SK는 CES 기간 중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SK(주) 등 8개 계열사가 '행동(Together in Action: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을 주제로 한 그룹 통합전시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전시관에는 SK(주) 외에 SK이노베이션, SK E&S,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C, SK바이오팜이 참여한다. 특히, SK가 투자하거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플러그 파워, 테라파워,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 등



SK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3'의 SK그룹관에서 인류가 기후 위기에 맞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마주칠 암울한 미래상을 첨단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SK수펙스추진협의회

10개 파트너도 함께 참여해 '글로벌 탄소중립 동맹'의 기술력을 과시한다.

SK그룹관은 ▲퓨처마크와 ▲SK, ▲아라운드 에브리 코너(곳곳에 있는 SK) 등 두 개 구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퓨처마크' 구역은 인류가 기후 위기에 맞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마주칠 암울한 미래상을 첨단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어진 주 전시관 'SK, 아라운

드 에브리 코너' 구역은 SK와 글로벌 파트너들의 다양한 탄소감축 솔루션과 '행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 구역은 SK의 넷제로 기술이 일상에 구현된 미래 도시 모습을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등 총 6개 주제로 나눠 보여준다.

SK와 파트너 사들은 주 전시관에서 최첨단 배터리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원전(SMR), 수소밸류체인, 지속가능식품에 이르기까지 40여개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또한, 5~6일 'SK 테크 데이(Tech Day)'를 열어 '넷제로' 기술과 사업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SK은 현재 상용화된 배터리 중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춘 SF(Super Fast) 배터리를 전시한다. 특수 코팅 기술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한번 충전에 4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SF 배터리는 그 성능을 인정받아

CES 2023에서 배터리 업계 최초로 '내장기술' 분야 최고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분야 혁신상'도 차지했다.

SK(주)와 SK이노베이션이 공동 투자한 테라파워는 소형모듈원전(SMR)과 함께 탄소중립 발전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소개한다.

SK텔레콤은 도심항공교통(UAM), AI반도체 '사피온(SAPEON)', 신재생 에너지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 등을 전시한다.

이번 CES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과 SK(주) 장동현·SK이노베이션 김준·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 10여명이 참석해 친환경 등 첨단 기술 트렌드를 살필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vitna@metroseoul.co.kr

사람과 환경 잇는다... 최대 규모 전시관서 맞춤형 경험 선사

(3368㎡)

삼성전자, 5개 스크린으로 초연결 경험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로 체험
통합 온실가스 처리시설 첫 소개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3' 개막을 앞두고 3일(미국 현지 시간) '삼성 퍼스트 룩 2023(Samsung First Look 2023)' 행사에서 신제품과 Neo QLED·마이크로 LED·OLED TV 라인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초연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삼성전자는 현장에서 마이크로 LED와 OLED TV, 친환경 액세서리 등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시연도 진행했다. 스마트홈 시장이 국내서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삼성전자가 선보인 스마트홈 제품들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as Vegas Convention Center)에



삼성전자가 선보인 게이밍 허브 존.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368㎡(약 1019평) 규모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싱스(SmartThings) ▲파트너십(Partnership)을 키워드로 기기간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과의 연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스마트싱스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 전체를 단순 제품 전시가 아닌 ▲지속가능 ▲홈 시큐리티(Home Security) ▲패밀리 케어(Family Care) ▲헬스&웰니스(Health&Wellness)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스마트 워크(Smart Work) 등 경험 위주로 구성했다.

정강일 삼성전자 상무는 현장에서 "2023년형 Neo QLED 8K부터 패밀리하



정강일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전자의 ESG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브 신제품을 비롯한 여러 비스포크 가전, 갤럭시 Z 폴드4·플립4, 갤럭시 워치 등 모바일 기기, 스마트 모니터 등 삼성 전자 제품과 파트너사 제품들을 연결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전시장 입구에 가로 약 8.6m, 세로 약 4.3m의 대형 LED 스크린 등 총 5개의 스크린을 설치해 초연결 경험을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비전 실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한다. 소싱부터 생산, 사용, 패키징, 폐기 등 총 5단계 11개의 제품 생애주기(Product Life Cy

cle)별 친환경 활동을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로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공정 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통합 온실가스 처리시설(RCS, Regenerative Catalytic System)'을 처음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더 많은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TV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능을 대폭 강화한 2023년형 TV 신제품을 선보인다.

화면의 윤곽선, 색채와 명암 대비를 강조해 저시력자들의 시청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릴루미노(Relumino)' 모드, AI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자막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자막 방송을 보여줘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높인 '오토 캡션 모드'를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월(SmartThing Wall)'을 통해 3대 핵심 플랫폼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과 다양한 집 안 기기들이 어떻게 연결돼 고객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올레드 260장' 이어붙인 초대형 지평선

LG전자, '라이프스 굿' 주제로 부스
webOS와 콘텐츠 경험 극대화

LG전자가 새로운 혁신 제품을 앞세워 'F.U.N 경험'을 소개한다. '라이프스 굿'을 통한 아름다운 미래도 함께 꿈꾼다.

LG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2023 부스를 4일 공개했다.

LG전자 부스는 '라이프스 굿'을 주제로 2044㎡ 크기로 조성했다. 지난해

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시를 최소화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다양한 혁신 제품으로 가득 채웠다.

입구는 '올레드 지평선'이 관람객을 환영한다.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붙인 초대형 조형물로, LG올레드 TV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소개된 이후 10년간 초격차 행보와 앞으로 펼쳐질 올레드의 미래가 맞닿아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의미다. 다양한 곡률과 오픈 프레임, 높은 명암비와 선명한 색감 등으로 태양계와 사하라 사막, 안틸로프 캐년 등 자연을 담아 실재를 걷는 듯한 경



LG전자는 CES2023 부스 입구에 '올레드 지평선'을 설치했다.

험을 제공한다. 전시관 내부에서도 올레드 TV 경험은 이어진다. 높은 화질에 더해 성능을

대폭 개선한 webOS와 함께 콘텐츠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97형 올레드 TV와 프리미엄 사운드바를 조합해 수준

높은 시청각 성능과 함께 부스에 바닥과 3면 벽 공간을 영상으로 가득 채워 관람객 움직임에 맞춰 변화하도록 해 몰입감을 더했다.

올레드 TV로 한국의 아름다움도 소개한다. 88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8K 등 초대형 스크린 체험공간에 수목화와 자수 등 영상을 활용하고, 한국 사랑방 처럼 조성한 공간에는 4K 해상도 136형 마이크로 LED 화면도 설치했다.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프리미엄 브랜드 '모오이'와 함께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2종과 투명 올레드 스크린, 무선 스피커 엑스북 360을 활용한 새로운 휴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했다.

/김재용 기자 juk@